

북경기행 (Ⅳ)



TRAVELS

Trip to Beijing

by Choi, Chang Kyu

11월 8일

하늘엔 구름이 끼고 찌푸린 날씨였다. 옛날부터 “북경의 가을”이라 하면 날씨가 좋기로 이름이 나 있다. 가을날씨가 약 15일정도는 세계에서 제일 기막힌 가을이라고 해서 구라파등지에서 여행을 올 정도였다. 펠릭여사의 “北京好日”이란 소설도 있을 정도이다. 하늘 색, 구름, 온도, 습도 모두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날씨의 연속인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 사이에 급강하하는 변덕을 부린다. 오늘은 그 변덕스러운 날씨인 것만 같다. 어제까지 그렇게 좋았던 날씨가 오늘 아침 갑자기 바람이 불고 우수수 나뭇잎이 휘날리고 영하 6도로 급강하했으니 말이다.

우리 일행은 호텔 현관 앞에 얼음이 언 것을 보았고 어느새 호텔 종업원들도 겨울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고 우리도 몹시 추워서 매점에 가서 목도리, 털모자를 샀고 집에서 바바리 코트를 꺼내 입었다.

조반후 전원 현관 앞에 모여서 차를 탔다. 오늘은 견학할 곳이 많아 서둘러야 했다. 북경 거리는 어제의와는 단판으로 스산했고 행인들이 몸을 쭈그리고 걷고 있었다. 간판들이 덜그럭거렸고 먼지나 종이조각들이 뿜굴고 있었다.

우리차는 북경교외 서북쪽에 있는香山공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청조나 명조 때에는 천자의 사냥터였다고 하며 지금은 공원으로 되어 있어 산록엔 고목이

우거져 있는 아름다운 산이다. 해발 1,000m의 고령으로 산정까지에는 “케이블리프트”(스키장 승강기와 같다)가 있다. 우리 일행이 이곳을 찾은 것은 미국의 저명한 중국계 건축가인 I. M. Pey가 설계한香山호텔이 준공된 지 얼마 안되고 건축잡지에서 이미 본 바 있어 모두가 실물을 보자는 데 있었다.

중공 건설관제자들은 정부의 전방위개방 정책에 의해 외국인들의 왕래가 많아짐에 따라 서구식 호화호텔을 건축하는데 같은 값이면 자국 출신인 I. M. Pey씨를 정했고 속으로는 현재 북경에서 아파트나 사무실 건물들이 고층으로 건설되고 있으므로

I. M. Pey라면 초고층의 세계적인 호텔을 설계할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했던 것인데 I. M. Pey는 구릉대지에 나즈막한 3층으로 흑색과 백색의 두가지 색으로 이룩한 중국 냄새가 나는 호텔을 설계해서 중국 당국자들의 허를 찌르며 호텔이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준 것이다. 과연 Pey는 Pey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Pey쯤 되면 무식한 정치가들의 희망을 무언으로 설득시킨 셈이 된다고 해야할 것이다.

창의 외양이나 색채, 내정(内庭)의 분위기 등이 서구식 건물이면서도 이것은 중국건축이다 라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건물이었다. 특히 정문의 간소함이나 중앙 로비의 큰 유리창 밖에 보이는 후원의 중국적인 경치를 심분 유도한 수법 등 기가 막힌 솜씨라고

생각했다. 우리 일행은 잡지에서 보던 건물을 직접 보고 더욱 놀랐다. 건물을 몇번이나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살피고 특별히 요청해서 객실 내부도 구경했다. 이 호텔은 주로 외국인 전용으로 초고급판 리외의 내국인은 투숙할 수 없다고 들었다. 2층 식당에서 점심을 중국요리로 하기로 했다. 아까부터 통역 한 여사는 “우리도 이런 호텔이 있다”라는 자랑스런 표정이고 우리 일행들이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니 더욱 그러한 것만 같았다. 식당의 식기와 수저에도 香山호텔의 마크가 들어있는 것이고 식탁도 고급이면서도 간소한 것이었다. 나는 식사가 끝나고 도제스푼과 작은 접시 한개씩을 슬쩍 가방에 넣었다. 이것을 훔칠 기본이어서가 아니고 여행자들은 가끔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한다. 나도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런 짓을 많이 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책상 위에도 그 접시에 커피잔이 놓여져 있어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식사 후 각자가 자유시간으로 하고 매점이나 건물사진을 찍기로 했다. 나는 그동안 미칠듯이 즐기는 커피다운 커피를 못 마셔서 목이 근질근질할 정도이어서 커피숍에 달려가서 단번에 커피 세잔을 한꺼번에 마셨더니 여종업원이 놀라면서 “손님은 커피를 아주 즐기시네요”한다. “북경에 온지 10일이 지나도록 커피다운 커피를 못 마셨다가 이곳 커피가 아주 맛있어서 그런거요” 그 종업원은 깔깔 웃으면서 “그래도 커피를 몰 마시듯 하다니요. 하기가 여기는 진짜이니까요” 한다.

일행은 모두 약속한 시간에 현관에 모였다. 이제부터 香山공원으로 가서 정상으로 올라보려는 것이다. 모두들 맛있는 건물을 충분히 보고 기분들이 몹시 좋았지만 날씨는 추웠고 바람도 일고 있다. 11명이 표를 사서 등산 lift를 탔다. 영성한 장치인데 불안했지만 한대에 두명씩 탑승했다. 원래 날씨가 좋으면 산정에서는 북경 시가지가 멀리 보이고 공원내의 탑이나 기타 유적이거나 건물들이 잘 보이는데 오늘은 구름이 끼고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산정에 올라 가보니 제법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산정에는 별로 시설도 없고 사진사들이 전국시대(전쟁시대)의 무장들의 옷과 가면과 칼, 창을 준비해서

그것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으라고 졸라댄다.

일행중 몇사람이 응해서 관우나 장비가 되어 칼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일행은 볼 것도 없고 또 추워서 하산키로 했으나 하행객의 열이 3백m나 길어서 2시간도 더 기다려야 할 판이다. 특히 연로한 몇사람은 새파래서 민망할 정도였다. 나는 운전사 장씨를 데리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소장을 찾아서 교섭을 했다.

우리는 외국인이다. 국제회의에 왔다가 가는 길인데 저녁에도 모임이 있어 빨리 하산해야겠다. 하산표의 2 배를 내겠다. 연로자가 있다. 여기 장씨에게 물어 보라, 등등 장광설을 늘어 놓고는 장씨에게 눈짓을 했더니 이 친구도 능청맞게 죽을 맞추어 준다. 술담배 한갑과 껌 몇개를 주고선 사정을 했더니 OK다. 소장이 직접 나와서 우리 일행 11명을 데리고 승강구에 나와서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더니 사람들은 불평없이 순순히 응해 주었다. 덕분에 우린 곧 하산할 수가 있었다. 하산하고 나니 산정보다는 바람도 약하고 덜 추웠다. 모두는 덜덜 떨면서 빨리 호텔로 돌아가자고 했다. 나는 운전사 장씨에게 모두가 오한이 나니 大浴池(따우치-)로 안내하라고 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중국 공중목욕탕이다. 당시, 분탕이라고 한다. 원래 중국인들은 목욕을 안하는 민족이나 1년에 2, 3 회하기는 하지만 이때 온종일 껌테기를 벗겨버릴 정도로 한다.

차가 욕탕 앞에 서자 모두들 “여기가 어디냐?” 하면서 물기에 설명을 했더니 환성이 나오고 뛰어 내렸다. 남부여부라고 입구에 써 있다. 나는 11명의 표를 살려고 매표구에 가서 표를 사고 모두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안에서 “와” 하는 비명소리가 났다. 뒤에서 한여사가 다급하게 “최선생! 그곳은 여탕이에요” 한다. 남부라고 쓰고 화살표를 해 놓은 것을 못보고 그냥 문을 열어젖힌 것이 여부였다. 우측으로 돌아 남부로 들어갔다. 각자에게 침대가 배분되고 벗은 옷들은 종업원이 긴 장대 끝에 달아서 천정 높은 곳의 못에 걸어 준다. 탕내에는 김이 서러서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욕조가 여러개 있는데 미지근한데서 부터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것 까지 있다.

장시간 추위에 떨고 있었으므로 욕조 내에

들어가기 싫었지만 같다. 그래도 북경에 와서 중국목욕도 해보다니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나와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손톱, 발톱, 귀소제, 차, 음식도 다 시킬 수 있다. 그때마다 대까치 조각을 탁자 위에 놓고 간다. 나올 때는 그 대까치를 모아서 계산을 하게 된다. 일행은 나오다가 이발부에 들러 모두가 이발까지 하고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했다. 날씨가 따뜻도 약간 풀려서 더욱 그러했다.

일행의 차가 북경 시내 천안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는 서산에 지고 캄캄할 때였다. 일행은 북경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다. 북경의 지하철은 건설한 지 얼마 안되고 현재 운행하는 전장이 24km 밖에 되지 않고 역도 12개소 뿐이다. 도시면적이 광대한 이 도시에 지하철이 이것밖에 안된다면 의아한 일이지만 전번에 말한대로 이곳의 대중대량 교통은 자전거이므로 지하철의 질실성이 희박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역이나 대합실은 제법 대리석으로 마감했지만 전등이 캄캄했다. 역마다 입구에는 큰 그림이 그려 붙여 있는데 대개가 건국의 인물들의 그림이다. 어쩐지 그 구도면에서는 촌스러워 보였다. 여하간 1구간을 타보기로 했다. 중국인 승객들이 우리 일행의 북장이나 행장이 이상했던지 모두가 쳐다 본다. 아마도 우리 일행이 다 가지고 있는 “카메라”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카메라가 흔하지 않다. 차중에서도 사진을 찍고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나간 구경거리 었을 것이다.

일행은 1구간을 타고 내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아마도 지하철이 반드시 필요했다기 보다는 이런 대도시에 지하철도 없어서 야 하는데서 이룩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여하튼 북경에도 지하철이 있다는 것뿐이다.

11월 9일

아침 날씨는 어제보다 누그러져 있었다. 가까운 대중사를 가 보았다. 이곳은 사원이라기 보다 종(佛)의 전시장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다. 주춧가에 있어 대저택같은 느낌이었다. 작은 것으로 부터 사원 이름대로 큰 것에 이르기까지 600개 이상의 종이 전시되어 있다. 가장 큰 종은 너무나 커서 이것도 종인가 할 정도이었다. 3층 높이의 종각 안에 있는 가장 큰 종 하나가 꼭 차 있다. 우린 종이라고 하면



북경의 유아원 원아들

종로 보신각종이나 경주 에밀레 종 정도로 알았는데 이걸 너무도 컸다. 또 적은것은 밥공기만한 것까지 있다. 종 모양도 약간씩 다르지만 대개 비슷했고 우리의 종 모양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특히 진기한 것은 수종이런게 있다.

종을 세수대와와 같이 거꾸로 놓고 그 속에 물을 부어 넣고 손바닥으로 가장자리를 힘주어 문지르면 물이 끓는것 처럼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오 우-오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매점 점원이 우리 앞에서 그리해 보였다. 그의 손바닥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만져 보았더니 뜨거웠다. 이런 진기한 일은 중국에는 많은 모양이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이런 종을 보았다.

대중사에서 나와서 곧 교외의 집단농장인 인민공사로 가 보기로 했다. 이미 연락이 되었는지 간부 2 명이 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여성이었다. 등소평이 전방위 개방정책을 쓴 후부터 부분적으로 인민공사를 폐지시켜가고 있다고는 하나 북경근교의 이곳은 관광객들의 "보고 가는 마을"로 아직 남겨 두고 있다.

먼저 농민들의 아파트를 보았다. 1 세대당의 면적이 10평방정도이다. 어찌 이런 좁은 곳에서 1 세대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부시설은 말할 것 없고 전등도 나구이고 배선도 "모-르"를 쓴 노출배선이다. 급수 파이프도 노출이다. 식탁도 거치된 나무 탁자였다. 난방은 어찌 하는지 알 수 없다. 물어 보았더니

우물쭈물 한다. 원래 중국의 기본난방은 炕(깡)이라고 하는 방내 일부분만의 고상온돌인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여성 안내자는 신나서 미리 외웠는지 녹음기처럼 줄줄 설명한다.

40대의 소장이란 자는 가끔 일본어를 섞어 쓰기에 "당신은 일본어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일본에 살다가 왔다고 하면서 처음엔 우리 일행을 일본인으로 알았다고 했다.

이들은 외화가 필요한지 어느 곳이든지 관광매점이 있다. 이 인민공사에도 관광객을 위한 매점이 있었다. 동양화, 서예품, 공예품들이 있었다. 말하기는 농민들이 여기에 만든 것이라고 했고 취미생활에서 제작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솜씨가 전문가들의 그림과 글씨였다.

나는 이 인민공사로 올 때 초입에 재래의 중국농가가 웅기종기 모여 있는 부락을 보았다. 견학 계획에 없는 일이지만 그 마을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거긴 볼 것도 없다고 잡아 떼다. 그래도 무리하게 즐겼더니 할 수 없이 가자고 하면서 안내해 주었다.

이 부락은 원래부터 있던 부락이었는데 아파트로 이주시키고 몇집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토담내를 들어서자 젊은 남자가 나왔다. 나는 소장에게 이 젊은이는 왜 작업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느냐?고 했더니 그는 휴가중이라고 얼버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농부같지 않았다. 이 농가는 9평정도 밖에 안되었고 중앙 거실엔 TV 한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조화를 꽃병에 꽂아 놓고 있었다. 가족이 몇명이냐고 했더니 7명이라고 한다. 부모, 처, 자녀, 동생 7명이라고 한다. "동거하느냐" "그렇다" "그런데 방이 두개 밖에 없는데 어떻게 숙식하느냐" 자기와 아이들은 거실에서 잔다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후담이지만 나는 증공 건축가 한사람에게 이 문제를 질문한 적이 있었다. 중국은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인 나라인데 농민들의 주거가 그렇게 협소하고 관공서는 웅장하고 광대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그런 질문은 곤란한데 하면서 대답을 안했다.

일행이 그 농가에서 나오는데 하늘에서 음악소리인지 비행기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가 멀리, 가까이 들리곤 했다. 일행중 누군가가 비행기가 떴나 하고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비행기는 보이지 않고 비둘기떼가 네 다섯무리 날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구나 하고 옛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주었다.

"秋天鳩遊"라고 하는 풍류인데 중국에선 양구하는 사람이 많고, 초가를 사람들이 모여서 피리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서로 불어보고 화음을 맞춘 다음 자기네 비둘기떼에 그 피리를 달아서 날리는 것이다. 그러면 40~5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씩 되는 비둘기 떼가 같은 피리를 다리에 달고 나를 때는 다른 소리나는 피리를 달고 많은 떼가 교차해서 하늘을 날고 있으면 마치 하늘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셈이 된다.

사람들은 가을하늘 아래서, 동구에서, 나무그늘에서, 언덕위에서 그 소리를 즐긴다. 이런 놀이는 중국 도처에서 가을이면 벌어지는 광경이다. 이것을 秋天鳩遊라고 한다. 바로 지금이 농기부락 위를 날고 있는 비둘기떼들의 합주이었던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은 일행은 놀랍다는 듯이 비둘기떼를 쳐다보았다. 이 지구상에서 어떤 민족이 이런 멋진 풍류를 즐긴단 말인가? 秋天鳩遊! 이것은 중국 민족만이 창안해 낸 기막힌 풍류인 것이다.

중국민족들은 옛부터 현실적인 것보다 대자연이나 신비한 것에서 인간생활의 가치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 것 같다. 몇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청담이라든가 있다.

이것은 공원의 나무 그늘에서나 깊은 숲속에서 20~30명이 모여서 정신수양하는

풍류인데 나는 옛날 직접 이 청담을 견학한 경험이 있다. 내 나이 28세때 어느 가을 일요일 오후였다.

고궁 내정을 거닐다가 20~30명의 중국인들이 백색주의 같은 것을 입고 나무 그늘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가 보았더니 동자가 이 좌석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물론 그때 나는 일본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구경만하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가 좌상적인 노인에게 가서 컷속말로 무어라고 하더니 끄덕끄덕 하며 승낙해 주었다.

이 청담은 40세 이상인 사람이여야 한다. 도교를 공부한 사람이여야 한다. 청담용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속어와는 다른 언어가 있다) 절대로 정치나 경제나 사회의 이야기는 못한다. 오직 花鳥風月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 라는 엄격한 규율이 있다.

동자는 한쪽 구석에서 철술에 烏龜이나 龍井 같은 명차를 다려서 맡없이 나를 뵈는데 그 차 다리는 물은 꼭두새벽 배를 타고 연못에 가서 연잎 위의 이슬(露)을 모아 온 것이고 끓이는 나무는 (薪) 작년 봄에 해놓은 버드나무가지여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고요한 나무 그늘에 유연히 앉아서 花鳥風月에 관한 이야기를 2~3 시간 나누고 헤어지는 정신수양의 장인 것이다.

이렇듯 그들은 대자연과 예술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생을 즐기는 풍류인 것이다. 기타 낚시, 뱃놀이, 요리, 불놀이, 창, 시회 등 갖은 놀이가 있지만 秋天鳩遊나 清談 같은 것은 그들만의 고유의 멋진 풍류라고 할 수 있다.

인민공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택가 뒷골목의 소위 보고가는 유아원과 탁아소를 견학했다. 내정 주위에 7~8개의 원아실이 있는데 동요소리도 요란하고 참새떼처럼 재재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느실에 들어 갔더니 젊은 보모가 20명정도 원아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보모의 지시도 없었는데 합창 하듯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한 여아에게 이름은? 몇살? 하고 물었더니 명확하게 王秀花(왕수화-) 六才了(류-취라)하고 대답한다. 그 방을 나올때도 보모는 아무말도 없었지만 원아들은 또 합창이나 하듯이 “안녕히 가세요(짜이젠)” 라고 한다. 참

잘 훈련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다. 여아들은 하나같이 머리에 붉은 리본의 꽃 꽃을 달고 있었다.

11월 10일

아침부터 頤和宮(萬壽山 또는 일명 西夏宮)을 견학기로 했다. 이 별궁은 북경 서부의 광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저 유명한 서태후의 여름 별장인 것이다. 옛날에는 여러번 와 본 곳이나 옛이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용케도 잘 유지 관리하고 있었다. 萬壽山 앞 넓은 昆明湖엔 많은 놀이배가 떠 있었고 멀리 옥산과 백담이 보이고 아름다운 곳이다. 玉帶橋(十七孔橋)며 누각들 대회랑(7km의 길이로 호수 반에 이어져 있다) 괴석의 정원 등 표현하기 어려운 호화로운 별궁이다. 서태후라면 명말의 여장부이다. 昆明호를 인공으로 파서 그 흙으로 萬壽山를 만들었다고 하고 호수에서 해군의 조련을 시켰다고 한다. 湖中の 소도상의 향각엔 어린 왕손(7세)을 독살시켰다는 애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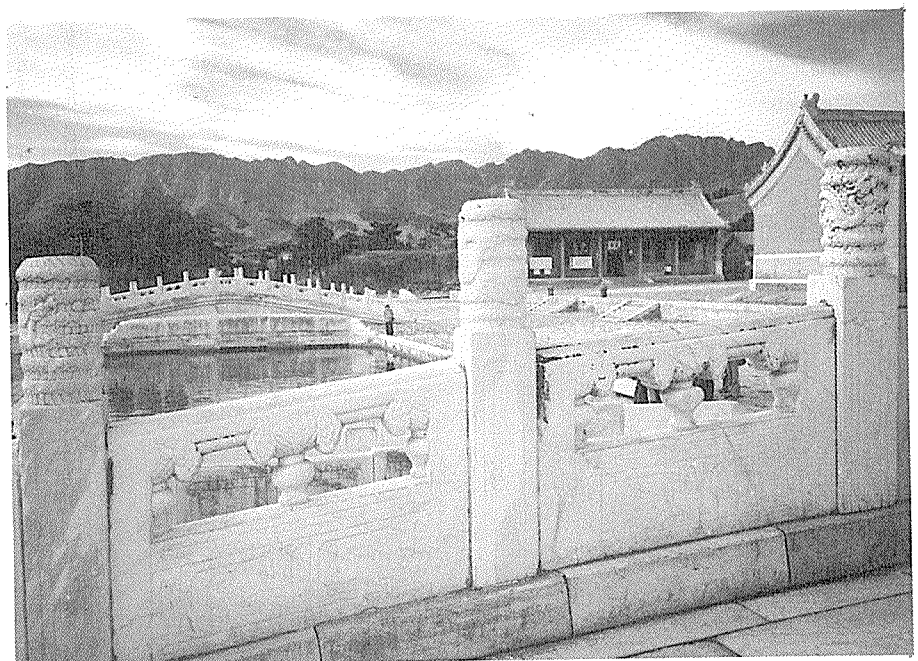
물결 넘실대는 호반 회랑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차 있었다. 일행중 4~5명이 十七孔橋를 건너 소도에까지 가 보았다. 도중에 홍콩에서 왔다는 젊은이들도 만났다.

나는 길가의 노점에 冰糖菓를 열개 샀다. 우리 일행에게 맛이나 보라고 할 셈이었다. 중국의 과자는 대개가 산과와 물엿으로 만드는데 빙당과는 “질뎡이”라는 산과를

물엿에 튀겨낸 것이다. 새콤한 산과가 나는 과자로서 일행도 모두가 진기하게 맛보았다. 나오는 길에 유품전시장에 들렀더니 고물 자동차가 진열되어 있다. 御車라고 써 있다. 살펴 보았더니 영국 Standerd Co. 라는 글자가 기관 파이프에 써 있다. 청조말엽에 자동차를 외국에서 사 왔구나 하니 놀란다. 그 옆에 기록을 보니 “어차가 성문을 나와 서부로 향하면 黃塵萬丈 驛時에 夏宮에 이르다” 라는 시가 있다. 당시 포장도 안된 도로를 10km 정도의 속도였겠지만 당시로선 꽤속차였을 것이고 그 차에 거들먹거리며 타고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서태후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한다.

이 하궁엔 명물이 몇개가 있다. 석주와 후정이다. 석주는 이름 그대로 한개의 거석을 2층의 실물 배로 만든 것이 호반에 놓여 있다. 물론 돌로 만든 배이니 떠서 갈 수는 없어 고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라가서 놀고 있다. 민수산 증터 누각의 후정은 순중국식 정원으로 괴석의 배치나 못, 화초 등 진귀한 후정인데 중국소설인 “金瓶梅에 나오는 西문경과 潘金蓮의 정사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

이 하궁에도 많은 설화나 애화가 구전으로 전해 오고 있다. 여하간 서태후란 여성은 중국의 역사상 여결임엔 틀림없다. 우리와 동족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전족의 후예가 이곳에서 이런 영화를 누렸다니 감개무량하기만 하다. 현재 이 서태후의 유해는 동청릉에 안치되어 있다.



동청룡이란 북경의 동쪽 125km 당산지구 지구에 속하는 遵化에 있는 청조왕릉이고 북경 서쪽 120km에 있는 易縣에 있는 서청룡과 합쳐서 소위 청룡이라고 한다. 이곳은 天津관할정치구이므로 우리 일행이 동청룡에 가려면 여권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여권의 사증은 북경지역 제한 사증이였다) 치안사무소에서 승낙을 받아야만 했다. 그것은 천진지역은 군수공장지대이므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의 여행도 제한하고 있다고 들었다. 통역인 한여사가 이리저리 비쁘게 승낙을 얻어가지고 갔다. 가는 도중에 어느 시골 소읍의 장날이어서 차에서 모두 내려서 장터를 구경도 하고 가노라니 준엄한 산맥이 보이고 그 산록에 많은 왕릉군이 산재해 있었다.

이 동청룡은 전에 말한 북경 근교에 있었던 명13릉과 그 규모나 양식이 다를 바 없고 너무도 흡사해서 별로였다. 다만 裕陵이란(乾隆帝陵)능의 지하궁전은 중국의 전통적인 공권식 석조 구조로 축조되어 있어 유명하다.

어느 능의 지하궁전에는 頤和宮의 장본인이었던 여결 서태후의 유해가 커다란 목관에 방부 옷칠을 해서 안치되어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일본이 강제로 만주 제국을 세우고 薄儀(淸朝王孫)를 허수아비 집정이라고 했던 薄儀의 판도 놓여 있었다. 그래도 왕손이라고 청룡군의 지하궁전이다 모시고 있으니 인간들의 정치권력의 장난들이 우습기만 했다. 그들은 그래도 자신들은 인간이 아닌 하늘이 제왕으로 정했다고 우기고 천자라고 거드름 피웠으니 말이다.

11월 11일

맑은 날씨였다. 내일 오후 3시면 우리는 북경을 떠나 귀국해야 한다. 오늘은 북경의 마지막 날이 되는 셈이다. 아직까지 못 본 곳은 너무도 많으나 볼 수 있는 곳은 보고 가야겠다고 일찍 부터 서둘렀다.

고궁 박물관에 갔다. (紫錦城 古宮) 천인문이 바로 이 고궁의 정문이 된다. 그밖에도 단문, 오문, 태화문, 독무문, 경운문 등등 너무도 많은 문들이 있다. 옛날 우리의 사신이 가도 겨우 오문까지 밖에 못들어가고 그 앞에서 천자의 각지를 들고 돌아 왔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래도 우리 일행은 지금

옥좌 앞까지 들어가 볼 수 있고 더우기 후궁의 왕비의 거처도 다 볼 수 있다니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고나 할까? 나는 그 옛날 이곳에 서너번 외본 곳이고 왕의 옥좌에도 올라가서 앉아본 일이 있다.

이 紫錦城은 500년간의 명조, 청조의 왕궁이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는 금나라나 원나라 때에도 왕궁이었다고 하고 현재의 고궁은 명조때에 더욱 증·보충한 것이라고 한다. “마르크 포로”의 동방견문록에는 북경의 “구비리이”의 왕궁의 기와는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다.

당시 서구인들의 눈에는 황금색 釉藥瓦는 순금기와로 보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궁의 규모는 서울 경복궁의 4 배 정도로 보면 된다. 방의 총수가 9 천개나 된다고 하니 아찔한 이야기이다. 현재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것은 후 3 전 이라고 해서 궁후부에 있는 일부로서 왕비나 궁녀들의 거처였던 곳뿐인데도 수많은 귀중한 보물들이 진열되고 있다.

장개석이 대부분의 유물을 대만으로 가지고 가서 대북 양명산 종턱에 고궁 박물관을 건축하고 있으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장품을 가진 박물관으로 되어 있다. 불국의 “루브르”나 大英 박물관, 카이로 박물관이나 스페인의 프리도 박물관 등은 대만 것에 비교도 안된다고 하니 그 나머지를 이곳에 진열하고 있는 셈이 된다.

전물, 단, 대, 호, 교에 사용된 그 많은 대리석들이며 정교한 조각들, 철제 수용에도 금박을 했고 해태상에도 금박이 입혀 있다. 아무리 천자라 해도 그러한 절대권력없는 어찌 이러한 조영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의 중국의 예술가들은 일생에 하나의 작품을 오직 천자에게 바치기 위해 만들고 죽어 갔다고 여기있는 많은 예술품들은 중국의 예술가들의 수난의 기록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었다.

후편 문무문을 나서면 경산이 있다.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호수인 북해, 중해, 남해를 파서 그 흙으로 만든 산이다. 숲이 우거져 있고 북경시의 중앙에 있는 산이므로 조망이 좋은 산이다. 이 산 어느 모퉁이의 고목가지엔 청조말에 어느 제왕이 권력 싸움에 못이겨 목매어 자살했다는 너무도 있고 후궁 딸안 어느 우물에는 어떤 왕비를 우물 속에 넣어 죽였다는 기록이 써 있는 우물이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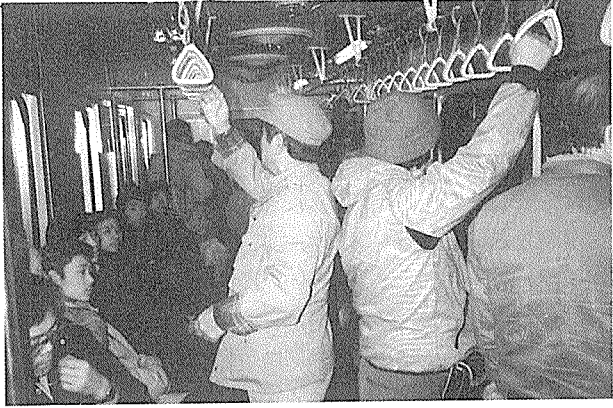
있다.

이 화려한 건조물 속에 깃들어 있는 수많은 애화들은 여행자들의 마음을 더욱 이쁘게 하고 허무인생사를 생각케 하는데 충분했다. 또 한가지 이 고궁에 놀라운 일은 외랑에 깊은 호를 파 놓고 연꽃을 심어 놓아 筒子河라고 하며 천자의 조반 식사에 쓰이는 蓮子粥(렌즈쑈-)을 만들게 했다고 하고 사우각엔 초소역할을 하는 각루가 서 있고 대소누각이 6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특히 성벽외부의 색조가 핑크색(桃色)으로 칠해 있다. 옛날 나는 이 색을 보고 속으로 천한 색을 궁성의 벽에 칠했구나 했으나 어느 일요일 오후 5~60필의 낙타가 석탄을 싣고 모라르도 낙타도 눈만 반짝이고 감동이 같이 되어서 꺼덕꺼덕 성벽 밑을 지날 때 성벽에 빛인 크로테스크 한 낙타의 그림자가 자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다.

紫錦城이란 성명도 수궁이 가고 중국인들의 색에 대한 감각도 심오한 것을 알았다. 과거 중국의 국기가 청천백일기라고 했고 남색바탕에 백색의 태양이 그려져 있었고 의복의 95%가 남색이었다. 이 안료는 화학안료가 아니고 각지의 촌락에서 남초란 풀을 베어다가 솔에 끓여서 안료로 썼다. 따라서 자연무공해 안료이고 가격도 저렴하게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즉 대중적인 것이고 그 남색이 중국대륙의 대자연에 가장 잘 조화되는 색임을 알았고 손 문선생의 혁명시에도 비밀결사로서 남의사라는 단체의 활약을 잘 알고 있는 터이다. 이탈리아의 못소리니의 흑사즈대와의 같은 것이라고 이해된다.

일행은 고궁의 후문인 신무문을 나와서 서북쪽 교외로 나가 戒台寺, 無拓寺 등의 사원을 방문기로 했다. 옛부터 중국의 절간은 불결하기로 유명했는데 근자는 승려는 없고 보안원이 주재해서 관리하고 청소도 잘 해 놓았고 안내문도 정리되어 있다. 공산국가에 종교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일행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왜 절간에 중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사상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한다. 거짓말이었다. 현재 중국의 사원엔 종교적 행사는 없다. 물론 승려들도 없다. 오직 관광자원으로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얼마 전에 북경 시내에서 기독교 성당과 예배당을 보고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사나 예배를 보느냐고



북경의 지하철 열차에서

물었더니 “물론 다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 다음 일요일엔 우리 일행 중에 기독교인이 많으니 미사와 예배를 볼 수 있게 성당과 예배당에 안내해달라고 했더니 “요즈음은 안된다. 모든 성직자들의 교육기간이어서 성당도 교회도 휴업이다.” 라고 한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후담이지만 귀국해서 1개월이나 지났을 때 신문에서 외신에 의하면 북경의 성당에서 처음으로 미사가 있었다고 하고 사진까지 나 있었으니 우리가 북경에 체재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

종교가 없는 나라! 우리는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해가 서산에 질 무렵 시내로 향해 출발했다. 서직문에 도착했을 때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초가를 날씨 같았고 거리는 컴컴했다. 우린 미리 약속된 중국 건축학 회장의 궁중요리로 초대된 북해공원으로 향했다. 호수의 물결이 강풍에 물보라를 치고 낙엽은 거리에 뿔뿔하고 스산한 일기였다. 우리도 추워서 달려서 궁중요리 전문점으로 들어갔더니 학회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뜨거운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다. 학회장은 아주 점잖게 앉아 있었다.

난생 처음보는 특이한 요리에 놀랄 뿐이었다. 옛날 궁중에서 이런 요리만 먹었다면서 웬 역대 제왕들의 평균 연령이 그렇게 짧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과의 담화 속에 몹시도 우리를 부러워 하는 것이 느껴졌다. 여하간 이들은 우리가 입국한 날로부터 우리 일행에게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융숭한 대접도 해주었다. 그들은 말끝마다 민항기의 반환은 고마웠다고 했다. 그들은 확실히 우리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학회 부회장이 나의 옆자리였는데 이야기 중에 동양에선 일본, 한국, 중공 3국 뿐이다. 나머지는 별볼일 없다는 말이

있었기에 나는 곧 북한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북한은 아직 멀었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나는 속으로 너희들도 다 알고는 있구나 했다.

일행은 밤늦게 북해공원에서 나와 쓸쓸하고 고요한 밤거리를 거쳐 호텔로 돌아 왔다. 모두가 말이 없이 시무룩해 있었다. 그것은 내일 12일 오후 3 시면 그래도 정들었던 북경을 떠나 귀국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밤 늦게까지 짐을 정리했다. 그리고 북경에서 마지막 밤을 착잡한 마음으로 지냈다.

12일 쾌청한 기막힌 날씨이다. 오전 10시반에 호텔을 출발해서 공항쪽으로 갔다. 중국국제여행사 부총재가 공항 부근에서 오찬을 초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간부직원 몇사람과 같이 와 있었는데 우습게도 우리가 준 올림픽 배지와 아시안 게임 배지들을 달고 있었다. 그들도 팡주리와 달력을 선물로 가지고 왔다. 통역 한여사도 운전사 장씨도 약 15일간의 정을 못잊어서인지 쓸쓸한 표정이다.

여기서도 이름모를 요리가 나왔으나 너무 궁중요리에 물려서인 김치 생각만 나는 판인데 그래도 이것이 북경에서의 마지막 요리이구나 하니 안먹을 수도 없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86아시안 게임에는 서울로 오겠다고 했다.

시간이 거의 되어서 공항으로 나갔다. 학회 간부들도 몇명 나와 있었다. 기념촬영도 하고 출국 수속을 하는데 여행사 직원이 거의 다 거들어 주었다. 그런데 여권에서 입국 비자를 뜯어서 걸어 넣고는 O.K 한다. 야- 이것 참 기막힌 일이구나 했다. 나는 제법 여행도 많이한 편인데 이런 식의 비자 처리를 처음 보았다. 동경 중공 대사관에서 준 비자는 별지이다 해서 우리 여권에 훑지키스로

찍어져 있었는데 그것만 떼고는 그만이니 우리 여권에 중공에 갔다왔다는 아무런 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셈이다. 미수교국의 여행엔 쌍방상호에게 편리한 방법이라고 했다. 행정서류란 묘한 수가 다 있구나 하고 감탄했다.

우린 그들과 굳은 악수를 하고 민항기에 탑승했다. 그들은 손을 흔들면서 재견(짜이젠)을 연발했다. 민항기는 쾌청한 북경 상공을 일회전하고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다. 나는 창가에서 사라져가는 북경 거리를 보면서 “북경이여 잘 있거라. 우린 또 다시 올 것이다.”

“再見中国朋友(짜이젠쥬고펑유 -) 입 속에서 중얼거렸다.

우리를 태운 민항기는 동경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나는 기내에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우리들의 이번 여행을. 운이 좋아서 기적적으로 갈 수 없는 나라에 갔다 왔다. 다행히도 일행중 한사람의 불편함도 없이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귀국하게 된 것을 하나씩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이야기했고 많은 것을 생각했고 느꼈다. 이번 여행은 그것으로도 족하다.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미구한 후일 우리의 건설역군들이 이 무한한 대지를 다듬을 것이고 우리의 장비의 팡음이 대륙에 울리고 우리의 상품이 시내에 나돌고 우리말 간판이 거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마음 속에 새겼다.

우리는 이들의 문자인 한자문화권에 살고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스며있는 도덕이나 윤리가 바로 그들의 도교적 교훈이 아니겠는가.

불가사의하고 미지의 나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나라. 제야무리 오성홍기를 흔들고 있어도 근본적으로 공산주의국가가 될 수 없는 전통과 역사를 가진 나라. 세계 인구의 4분의1로 인구가 자각하는 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나라. 현재의 젊은 층들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도 자신만만했고 당당해지는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다.

화장을 모르는 여인들, 소박한 차림의 관공리들, 우직하리만큼 겸손한 생활 등등 무의식중에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게 된다. 그래도 그들에게도 자유의 물결은 말없이 들어가고 있었다. (*)